

Q 검색

현대불교

f

[홈](#) > [기획](#) > [기획특집](#) > [상월결사](#)

21세기 새 결사 '상월결사', 천리순례 입재

순천 송광사=노덕현 기자 | 입력 2021.10.01 10:21 수정 2021.10.01 11:08 댓글 0



10월 1일 순천 송광사서 입재식 봉행

보조국사감로탑·국사전 참배하며 결의
현봉스님 "정혜결사와 같아" 의미부여
순례단 108명 구성, 가사 염주 통일
정치계 등 "국민화합 계기" 응원 전해
첫날 순례 22km 진행, 방역 눈길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순례단이 승보종찰 송광사 산문을 나와 첫 순례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불교 근간을 이룬 정혜결사지 조계산 송광사서 새로운 결사가 시작됐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10월 1일 순천 송광사서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입재했다.

‘땅에서 넘어진자 땅을 딛고 일어서라. 번뇌하는자, 한마음을 깨달아라. 옛 성인의 발자취를 쫓아 정진하다보면 마음 한자락 밝아질 일이 머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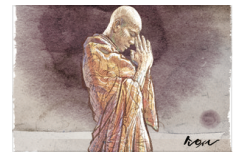
불교 쇄신의 가치였던 정혜결사문에 남겨진 결사 정신이 천리순례 입재식에서 108명의 천리순례단 고불을 통해 다시 현현했다.

최신뉴스

“경이로운 존재의 순간이 화양연화”



갯짜나, 찌다뻗조따왕을 교화시키다



한국선 주도 세력으로 전승된 임제 선법



중생 괴로움 없애주는 경전

불교계율, 이 시대 나침반 될 수 있을까

인기뉴스

- 1 광주시, 종교편향 논란 순례길 명칭 변경
- 2 대기업 과장서 재한미안마학생聯 지도
- 3 제25회 울산불교합창축제 성료
- 4 (재)선학원 '성범죄 이사장' 법진 스님 자
- 5 “불과 두 세달 명상만으로도 뇌 바꿀 수

studio GONG

[현대불교 NEWS] 태공 월:





4부대중 대표들이 입재식에서 순례 고불문을 낭독하고 있다.

비구 우봉 스님, 비구니 지혜 스님, 우바새 정충래, 우바이 이태경 씨를 대표로 천리순례단은 “불법승 삼보의 불국성지가 이 땅에 있음을 확인하고 한국불교의 정법존엄을 지켜온 삼보종찰을 두루 알려 상월결사 공덕을 전법으로 승화하고자 한다”며 “부처님께서 걸으신 전법과 포교의 길이 우리 땅에도 똑같이 살아있음을 환희심으로 체감하고, 한국불교 전통계승 순례, 불교중흥 순례, 사회화합 순례를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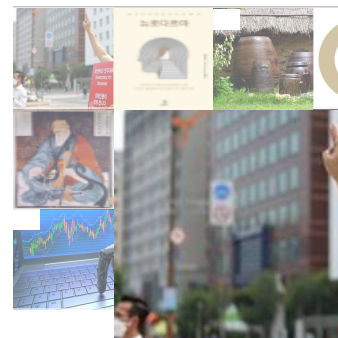


순례단에서 재가불자들은 특별히 제작된 재가자 가사를 수하고 순례에 임했다.

이날 입재식은 송광사 괘불을 내거는 행사를 시작으로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내빈소개와 결사수행을 상징하는 족비 전달, 고불문 낭독,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의 법문, 김영록 전남도지사 축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영상뉴스] 태공당 월주 대종사 영결식·다비

당신이 좋아할 만한 이슈



현대불교

대기업 과장서 재한미안마확성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은 정혜결사의 정신과 상월결사 정신이 다르지 않음을 들며 화두를 던졌다.

입재식에서 법석을 편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은 정혜결사 정신과 상월결사 정신이 다르지 않다며 천리순례단에게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현봉 스님은 “수행자 본연 자세로 돌아가자는 것이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정혜결사”라며 “한국불교를 새롭게 하자는 상월결사는 신심과 원력의 장이다. 이 순례는 문명의 세태 속에 침체된 한국불교를 새롭게 하는 나침반이자 사통팔달의 한국불교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또 스님은 순례단에게 “부처의 길을 따르려 하지 말라. 진실로 참구하여 걷는다면 여러분이 부처요, 부처가 여러분을 따를 것”이라며 화두를 던졌다.



보조국사감로탑을 참배하는 상월결사 회주 지승 스님을 비롯한 순례단의 모습

입재식에서는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법주사 주지 현고 스님, 동화사 주지 능종 스님 등 수많은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함께해 송광사 산문 앞까지 배웅하며 천리순례단의 첫 발걸음에 힘을 보탰다.

이밖에 입재식에 앞서 순례단이 진행한 송광사 참배는 상월결사가 새로운 시대의 결사임을 알리는 자리였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천리순례단은 16국사의 진영이 모여진 국사전과 보조국사감로탑에서 절을 올리며 새로운 결사에 대한 의지를 다시 다졌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국사전에서 보조국사 지눌 스님 진영을 비롯한 16국사 진영에 결사 의지를 다지는 절을 올리고 있다.

입재식 후 순례단은 바로 첫날 순례를 진행했다. 첫 순례는 전남 곡성군 구룡리 용바위주민생활체육공원까지의 22Km구간에 펼쳐졌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초가을의 들판과 단풍으로 변해가는 숲길에서 순례단은 행선을 이어갔다. 이날 순례단은 지난해 상월결사 자비순례 때보다 늘어난 인원에도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차분하게 순례를 진행했다. 묵언 속에 전달 지급받은 108염주를 돌리고, 가사까지 함께 수한 불자들과 스님들의 모습에서 경건함이 느껴졌다. 순례단의 힘찬 발걸음과 조계산의 맑은 바람에 코로나로 인한 속세의 티끌이 모두 날아가는 듯했다.



입재식 전 송광사 괘불을 뒤로 송광사 참배를 진행하는 순례단의 모습

한편, 상월결사 천리순례에는 각계 각층의 응원메시지가 전해져 의미를 더했다. 입재 전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백만 원력결집의 현장인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에서 상월결사 발걸음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치계를 대표해 이재명, 윤석열 대선후보도 각각 “수행정진의 서원을 가슴에 새기고 지혜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 “순례로 삼보의 존귀함이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 불교가 국민들로 사랑받길 기원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국난 극복 의지를 모으는 여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원력일 될 것”이라고 했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천리 순례는 영호남의 화합과 국민희망을 위한 대장정”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불자배우 이덕화 씨는 “힘겨운 여정을 지켜보는 이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응원대중으로 동참해 마음으로 함께 걸겠다”고 했고, 김형석 작곡가도 “코로나로 공포와 불안 등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불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응원하는 마음로나마 함께 걸겠다”고 말했다. 불자연애인인 김혜옥, 이경규 씨와 불자가수 장사의, 김흥국, 불자국악인 김성녀,

회주 자승 스님과 인연이 깊은 김수로 씨와 종립 동국대 동문인 조여정 씨 등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대중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순천 송광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기자의 다른기사 >

#삼보사찰 #천리순례 #자승 스님 #순례 #송광사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천리순례 전야, 각계 격려 응원 이어져

[삼보사찰 천리순례] 미리보는 삼보사찰, 함께가는 순례사찰

[삼보사찰 천리순례] 한국불교 순례사와 상월결사 순례 의미

[삼보사찰 천리순례] 왜 삼보에 주목해야 하나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순례, 가을과 함께 걷다

[천리순례] 마음으로 밀고끌고, 천리걸음 가법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韓불교 활력 불어넣는 희망

[삼보사찰 천리순례] 한눈에 보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삼보사찰 천리순례] 삼보사찰 천리순례 불교적 의미

[삼보사찰 천리순례] 단상- 어떻게 걸어야 할까

우중행선(雨中 行禪), 걸음마다 환희만이...

이시각추천뉴스

[도반함께 천리순례] "마음으로 서로 밀고 끌고"

우중행선(雨中 行禪), 걸음마다 환희만이...

[삼보사찰 천리순례] 11일차 순례, 가을과 함께 걷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상월결사 순례단, 법보 가지 되새기다

"봉암사 인근 채석장 재허가 취소하라"

동아시아 불교 속강 '땅설법' 조명 학술대회 열린다

동국대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 내년도 신입생 모집

[도반함께 천리순례] "마음으로 서로 밀고 끌고"

당신에게 추천하는 콘텐츠

AD

김완선 따라하고, 운동없이 허벅지 안쪽살 뺀 주부 화제

우중행선(雨中 行禪), 걸음마다 환희만이...

[현불논단] 천리순례, 그리고 서원공동체

AD

[삼보사찰 천리순례] 韓불교 활력 불어넣는 희망

주식할때 '3가지'기억하면 '큰돈'번다

무문 홍법사 앞 도로공사 강제집행에 불상 '산산조각'

기사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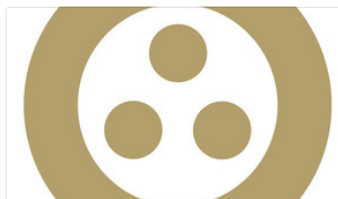
주요기사



광명사, 불교 스피치로 포교 강조



템플스테이 체험한 펭수, 묵언 수행에 성공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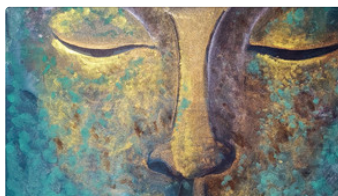
광주시, 종교편향 논란 순례길 명칭 변경기로



[삼보사찰 천리순례] 미리보는 삼보사찰, 함께가는 순례사찰



코로나에도 '추석차례'는 사찰에서



佛法 담은 미술로 지친 대중 위로



UPDATED. 2021-10-11 22:05 (월)

제보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찾기
비밀번호찾기	구독신청	불편신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6길 36 (오피스텔월드) 606
대표전화 : 02)2004-8200 | 팩스 : 02)737-0698
법인명 : 현대불교신문사
등록번호 : 서울 아 00332 | 등록일 : 2007-03-09
발행·편집인 : 조혜도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주일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현대불교신문. All rights reserved.